

육계 장기 불황 수습, 해결책은 없는가?

◇ 홍보 팀

육계산업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육계농가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난달은 H계열사가 부도를 맞는 등 육계업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복에 근접한 초중순경 육계 산지 가격이 1,500원까지 상승하면서 1년 넘게 생산비선 이하의 가격으로 불황에 시달리던 육계업계가 다소 숨통이 트이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육계업계를 긴장속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양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종계 노계도태사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계열사 및 일

반 종계업자들은 병아리를 렌더링 처리하는 등 소비부진과 과잉생산으로 일관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를 조기에 수습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원종계 사육 큰폭 증가

최근 5년간 육계평균가격을 보면 2002년 상반기까지는 평균 1,200원대를 기록하면서 생산비선 이상의 가격을 유지해왔으나 2002년도 하반기의 경우 917원, 금년 상반기는 953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악의 육계가격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황이 찾아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무계획적으로 입식해온 원종계와 종계로 인한 사육수수 증가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종계 수입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 9만수대를 유지해오던 원종계 입식이 2001년에는 137,913수, 2002년에는 150,836수가 입식되면서 적정수수인 9만수보다 무려 53.2%, 6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금년 상반기까지 72,000수가 수입되면서 하반기 수입예정인 7만여수가 들어



▲ 원종계 감축을 위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육용원종계 사육조절방안 회의 모습)

을 경우 앞으로의 육계산업의 행로는 가시밭길
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원종계의 입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종계수
수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부터 적정 사육수수인 400만수대를 이
미 넘어섰고, 금년도 예상되는 종계생산 잠재
력 수수는 680여만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
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앞으로 2~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2. 원종계 감축방안 협의

농림부에서는 지난 6월 25일 육용종계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한 종계관리 방안, 종계 조기도
계도태 유도 등 육계산업의 불황극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불황이 원종계의
과잉입식이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고 적정 사육
수수인 9만수의 원종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
제한은 물론 종계 조기도태 등을 통해 육계산
업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즉,
그동안 농가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해 왔으
나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
에 놓이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 1일 육용원종계 사육조절방
안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 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감축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원
종계업계를 이끌고 있는 (주)삼화육종, 한국원
종, (주)하림인티 3사가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
지 못한 채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이들은 국내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원종계의 9만
수 유지는 동감했지만 각사로 배정된 물량에 대
해서는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끝내 합일점을 찾
지 못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원종
계 사육 실적 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주)삼화육
종은 50,000수, 한국원종은 22,000수, (주)하림인
티는 20,000수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
나, (주)삼화육종은 수출물량을 감안하여 60,000
수, 한국원종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최소물량인
30,000수, (주)하림인티는 자체 계약농가의 원활
한 종계보유를 위해 24,000수를 각각 요구하면
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모처럼 정부의 적극
적인 개입으로 쉽게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했던
감축협상이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되었다.

3. 육계불황 극복 방안

육계, 종계인 및 업계관련인들은 이번 협상결

표1. 최근 5년간 원종계 수입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예정)	소계
삼화육종	55,635	61,790	63,300	45,000	45,000	90,000	45,000	47,500	92,500	45,000	45,000	90,000
하림	19,289	16,848	14,742	7,371	8,542	15,913	12,636	18,700	31,336	12,000	12,000	24,000
체리부로	-	-	-	12,000	10,000	22,000	12,000	15,000	27,000	-	-	-
한국원종	-	-	-	-	-	-	-	-	-	15,000	15,000	30,000
충원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	-	-	-	-	0
합계	84,924	88,638	88,042	74,371	63,542	137,913	69,636	81,200	150,836	72,000	72,000	144,000

※수입수수는 D라인 기준임

과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 의지를 불태우며 적극적인 협상이 이끌었던 정부관계자도 이권대립 양상국면하에서 더이상의 의견을 좁히지는 못하였다. 9만수가 국내 시장의 적정 수수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데는 회사마다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으며, 수급불균형시 잘못하면 환우계증가에 따른 질병발생은 물론 수입량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쓰러져 가는 육계업 앞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최소한의 양보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림부 조병임 사무관은 처음 의지대로 정부의 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주어

서라도 육계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3사들과의 물밑 접촉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원종계 감축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최근 종계업계에서는 물량파악 및 수수조절을 위해 종계 DB구축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병아리 렌더링 처리와 종계조기도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원종계업계도 서로의 희생을 감수하고 재협상이 이루어져 원종계 감축에 대한 합일점을 찾는다면 앞으로 육계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없는 소모전은 육계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적인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

생석회 ♠ 소석회

-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 유기질 분해촉진
-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 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